

음원스트리밍 수익배분비율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스트리밍 상품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 인상 60% → 65% 뮤음 상품 등 할인을 단계적 폐지... 2020년까지 유지 내년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 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되는 등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작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를 가리킨다.

그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신작관리단체들은 그간 음악 창작자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전송사용료가 배분돼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에 대한 해소, 뮤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을 개선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뮤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뮤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한 과도한 사용료 할인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화부는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뮤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을 (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

부터는 폐지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부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며 이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을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시스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업 N이 드디어 국내 시장에 데뷔했다.

현대차, '벨로스터 N' 판매 개시

고성능 라인업 'N'이 처음 선보이는 고성능차 2.0 터보 엔진 · 6단 수동변속기 · 브레이크 등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업 N이 드디어 국내 시장에 데뷔했다. 현대차는 자사 고성능 철학과 모터스포츠로부터 얻은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벨로스터 N을 20일(수)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벨로스터 N은 '펍 투 드라이브(Fun to Drive, 운전의 재미)'라는 고성능 라인업 N의 철학에 따라 지난해 유럽에서 출시한 i30 N에 이어 개발된 현대차의 두번째 고성능차다.

"운전의 재미(Fun to Drive)"라는 철학을 따르는 N의 3대 고성능 DNA는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곡선로 주행능력) ▲일상속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 ▲레이스 트랙 주행능력(Race Track Capability)이다. 벨로스터 N은 최고출력 275마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N 전용 고성능 가솔린 2.0 터보 엔진과 N 전용 6단 수동변속기를 장착해 파워풀한 동력성을 갖췄다. /원주=이종복 기자

또한 N 전용 고성능 브레이크를 탑재해 고성능차에 걸맞은 우수한 제동성능을 확보했다. 벨로스터 N은 ▲차체 주요구조 보강설계로 향상된 차체강성 및 내구성 ▲새시의 차축구조와 강성강화를 통해 높아진 주행안정성 ▲신규 로직이 적용된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R-MDPS)과 스티어링 감성 및 마찰 개선을 통해 강화된 핸들링 응답성 ▲다양한 주행감성 체험이 가능한 5종(에코, 노멀, 스포츠, N, 커스텀)의 드라이빙 모드(N 그린 컨트롤 시스템) 등으로 N만의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벨로스터 N은 서킷이나 트랙은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고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일리 고성능차"라며 "벨로스터 N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슴 뛰는 운전의 재미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셋값 20% 떨어지면... 임대가구 21%는 '은행 돈' 빌려야

금융자산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가구는 78.4% 나머지 14.5%는 주담대 · 7.1%는 신용대출 받아야 전세자금대출 규모 72.2조... 3년새 두배 급증

전세가격이 20% 급락하면 임대가구의 약 21%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대가구 약 27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이 20% 떨어질 경우(의환위기 당시 수준) 전세보증

금 반환능력을 살펴본 결과 임대가구의 21.6%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대출없이 금융자산으로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가구중 거주 주택의 담보대출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가구는 14.5%로 추산됐다. 나

머지 7.1%는 추가 신용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5.6%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하였으나 1.5%는 DSR이 40%를 넘는 가구였다. 전세금 하락시 다주택 임대가구도 유동성 측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다주택 임대가구의 34.2%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15%였다. 다만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다주택임대가구는 0.3%, 1주택 임대가구는 0.8%에 불과해 재

무권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전세가격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세수요는 정체된 가운데 앞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늘면 전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전세가격의 점진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등을 볼 때 가계,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되면 파급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지역본부, 여성 농업인 워크숍 성료

전북농협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는 농가주부모임(회장 이정자), 고향주부모임(회장 정명숙)과 19일~20일 1박 2일로 여성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부들의 행복한 수다'라는 주제로 '전북여성농업인 워크숍'을 농협 변산수원원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남원에 귀농하여 밭효신품을 만들고 있는 고평자(하늘모퉁이 대표)와 청년여성농업인 김슬지(부안 슬지재배소 대표)를 초대하여 사례를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용성 내분비내과장(대지인 병원)의 특강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미니수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창의 청년농부 강상훈(성

일농장) 농가를 견학하여 영농기술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정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가주부모임과 고향주부모임이 행복한 농촌 만들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체 간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을 선도하는 당당한 여성리더가 되자"며 소감을 말하고,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업인구 감소와 이상기후 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도 긍정에너지로 농촌을 가득 채워주시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여성농업인의 자위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더위에 강한 배추 · 무 · 양배추 나온다

농진청, 오늘 품종 평가회... 조만간 민간에 분양 더위에 강한 엽근채소 품종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원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엽근채소 품종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엽근채소인 배추 100품종과 양배추 · 상추 315품종, 무 100품종을 선보인다. 엽근채소는 잎과 뿌리를 모두 먹는 채소류로, 날씨가 더우면 재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농진청은 배추의 경우 8년 전 국내 품종 50점을 수집한 후 겨울 노지에 비닐을 덮어 저장해가며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뇌수분(개화 전 수분)으로 육성하고 4차례 여름 재배를

통해 더위에 강한 계통을 선발했다. 무는 60여점을 수집 · 육성해 꽃피는 시기가 늦고 비릿함이 적은 품종을, 양배추는 119점을 수집 ·육성해 시들음병과 흑부병 저항성이 큰 품종을, 상추는 196점을 수집 ·육성해 고온기에 적색이 잘 들고 시들음병에 강한 품종을 각각 골라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은 "더위에 잘 자라는 엽근채소 품종을 민간회사에 분양할 계획"이라며 "무더운 여름에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소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0일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에 4억9500만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이날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영장지역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02년부터 매년 기금을 출연해 지금까지 총 70억여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는 도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김장근 본부장)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출연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